

일제 강점기 공주 동불사의 아리다라부인회와 능인소년회

김성준*

• 목 차 •

- I. 서론
- II.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와 공주포교당
- III. 능인소년회와 아리다라부인회의 활동
- IV. 마곡사와 공주포교당의 불편한 공존과 그 배경
- V. 결론

*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309-330.

한글요약

이 글에서는 대략 13여 년 정도 존속했던 공주포교당의 아리다라부인회와 능인소년회라는 신행결사조직이 실천했던 신행과 포교, 사회적 지원활동들의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1910년대 이후 근대적 포교이념과 함께 각 교구 본사들을 중심으로 포교당 설립이 진행되면서 공주 읍내에도 포교당이 등장하게 된 것이 본 논문의 역사적 배경이다.

공주지역 유지 계층에 속하는 부인들로 구성된 아리다라부인회는 신행과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특히 포교사 임명의 문제에 대해 강한 행동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식민지시기 일본 총독부의 불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 당시 한국 불교계의 전반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공주포교당 내의 또 다른 결사조직인 능인소년회에서 운영한 무료강습소인 신탈강습원의 경우에는 무산계층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겹치게 되면서 총독부의 주시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능인소년회는 결국 자체적으로 강습소를 폐지하게 되기에 이르는데, 이는 본사의 독단과 일제의 감시 및 한국 현대사의 이념적 대립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교당 측의 주요 세력인 아리다라부인회는 포교사 임명의 문제로 본사(本寺)인 마곡사 측과 대립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결사 모두 지역의 포교당에서 신행과 포교, 사회적 봉사까지 지향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결국 시대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이 두 결사의 행적은 일제 강점기에 불합리한 불교제도의 압박을 견뎌내야 했던 근대불교의 산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사에 기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공주 동불사, 아리다라 부인회, 능인 소년회, 일제 강점기, 근대불교결사, 포교당

I. 서론

충청남도 공주시 포교당길 17에 위치한 동불사는 원래 마곡사 공주포교당(公州布敎堂)으로, 공주읍 본정本町 161번지(웅진로 147)에 시민들이 기부한 토지에 건물을 세워 건립되었다.¹⁾

공주 읍내의 한 중앙에 위치했던 포교당은 당시 읍내의 여러 단체들이 회의와 토론을 하던 장소로 주로 활용되었다. 이는 공주포교당이 변화의 격동이 진행되던 시기에 지역 내 소통의 중심지로도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1925년 4월 30일(음 4월 8일) 석가탄신일 행사에는 남녀 수백 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소기의 목적인 포교에도 성공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6.25 전쟁 이후 파괴된 포교당 건물은 재건되었지만 포교당을 매개로 조직되고 활동했던 당시의 신앙결사들은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대략 13여 년 정도 존속했던 공주포교당의 아리다라부인회라는 한국 근대불교의 신앙결사조직이 실천했던 신앙과 포교, 사회적 지원활동들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들 두 조직에 대해 ‘결사’라는 명칭을 붙여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앙을 매개체로 결성된 다수인이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고, 실행을 함께 했던 조직이라는 점에서 결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공주포교당과 관련된 결사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로는 사문경의 「1920年代 公州布敎堂의 運營과 活動」이 있다.²⁾ 또한 마곡사와 공주사에서 ‘한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하여 펴낸 『마곡사지』 「자료편」이 있다. 그 밖에 마곡사나 공주포교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국 근대불교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결과들과 신문기사, 불교잡지 등을 비롯한 문헌자료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당시 불교계의 일반적 상황과 정치·사회적 배

1) 본정本町 162번지는 2000년 11월 22일에 155-11번지로 합병되면서 말소되었는데, 현재 공주농협과 제일화방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2) 사문경, 「1920年代 公州布敎堂의 運營과 活動」, 『한국불교학』 34, 한국불교학회, 2003

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문기사 등의 편린을 통해 아리다라부인회의 활동을 추적하는 작업은 이미 사문경의 연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해당 결사조직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아리다라부인회나 능인소년회 등 동불사 신도들의 결사를 중심으로 본사인 마곡사와 공주포교당 간의 갈등에서 그 결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의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공주포교당이라는 신앙의 배를 타고 있던 결사조직들이 한국 근대불교사 전체를 관통하는 식민지배와 이념의 파도, 그리고 본사와 말사라는 긴장 구조를 두고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또 시대의 조류 속에 휩쓸려 사라져 갔는지 그 도정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포교의식과 공주포교당

1910년대 초반 불교계 잡지를 대표하는 <조선불교월보>의 19호의 내용에 따르면 1913년에 이르러 포교당이 18개 처에 달했다. 1920~30년대에도 포교당의 건립을 통한 불교의 포교 활동은 지속되었다.³⁾ 1910년대의 잡지들은 대체로 산중불교에서 도시불교로 전환하는 당시 불교계의 구체적인 움직임, 즉 포교당·법회·불교학교 관련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⁴⁾

김광식은 근대한국불교에서 포교 문제가 구체화 된 시점을 중앙포교당의 성격을 갖는 각황사가 창건된 1910년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1910

3) 김광식,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근대불교 최초의 포교당 연구」, 『대각사상』 제6집, 대각사상연구원, 2003, p.10.

4) 김기중, 「근대 불교잡지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민족문화연구』 제2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p.387.

년 10월의 각황사의 등장은 근대불교의 포교의 기점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⁵⁾ 이러한 각황사의 등장과 맞물려서 당시 불교계의 개별 사찰, 혹은 사찰이 연합하여 도회지에 포교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근대불교의 청소년포교와 조선불교소년회 13호(1913.8)에 전하는 <포교구현상일람표>에 나오는 18개처의 포교당 설립의 시기가 1910~1913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예증이다.⁶⁾ 이리하여 1910년부터 포교는 불교계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되었으며, 개별 사찰 내지 연합사찰의 주도로 포교당 건립과 운영을 통하여 포교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불교잡지, 포교당, 포교 방법의 심화, 계층별 포교(소년, 부인회 등), 유치원 등 다양한 불교근대화의 산물에는 자생적 고민과 함께 일본 불교의 영향이 개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일본불교에서는 ‘사원불교에서 가두불교⁷⁾’로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불교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불교 근대화를 추진한 주체들이 대부분 일본유학 및 견학을 거친 이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불교근대화작업이 일본 불교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⁸⁾

교구 본사에서 포교당과 그에 부속된 학교를 운영했던 상황은 순천 송광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1909년 12월 2일에는 조계산 송광사 본사에 일반 초등학교 수준인 사립 보명(普明)학교를 세우고 주지 금명보

5) 김광식, 「근대불교의 청소년 포교와 조선불교소년회」, 『대각사상』 제8집, 대각사상 연구원, 2005, pp.11-12.

6) 한용운이 『조선불교유신론』을 발간한 것도 1913년이었는데, 그는 불교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로 포교를 강하게 강조했다. 한용운은 연설, 신문 및 잡지 발간, 번역, 자선사업 등의 포교 방법을 제시하고 심지어는 산중에 있는 사찰을 통폐합, 폐쇄 등을 통하여 도회지로 이전시키자는 주장도 하였다. 김광식, 2005, pp.12-13.

7) 김광식에 따르면 이 표현은 “山間에서 街頭로, 僧侶로서 大衆에; 산간의 불교를 도시불교로, 승려불교를 민중의 불교로” 등등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었다. 김광식,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한용운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 김광식,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일본불교사연구』 제9호, 일본불교사연구소, 2013. p.23에서 재인용.

8) 김광식,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일본불교사연구』 제9호, 일본불교사연구소, 2013, pp.22-23.

정(錦溟寶鼎, 1861~1930)이 학감의 소임을 맡았다. 또한 1910년에는 송광사 불교포교당에서 송명(松明)학교를 세워서 금명보정이 한문과 불교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⁹⁾

아울러 선불교 전통의 복원을 중심으로 근대불교를 실천하고자 했던 불교계 보수진영은 1921년 선학원(禪學院)을 창립하였고, 이 선학원이 1931년에는 ‘부인선우회’를 조직하게 된다. 총 31명의 회원이 모여 1931년 3월 1일에 ‘남녀선우회’가 조직되었는데, 남자선우회는 비구를, 여자선우회는 재가여성들을 말한다. 그 여자선우회가 바로 부인선우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것이었다.¹⁰⁾ 1930년대에는 선학원의 부인선우회 뿐만 아니라 표훈사 부인선원 및 무주 부인선회 등도 만들어졌다.

김태흡이 발행한 『불교시보』는 1933년 7월에 종간된 『불교』 이후 교단의 기관지가 없는 상황에서 조선불교의 기관지를 자처하며 1935년 8월에 창간되었다. 잡지의 체제는 <부인란>·<포교지도란>·<수양강화(修養講話)>·<아동란> 등의 고정란, 심전개발운동·황도불교에 관한 논설, 교리 해설, 불교계 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잡지의 내용에서는 일제 군국주의 정책을 선전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아동란>·<부인란> 등이 고정으로 게재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불교대중화의 측면에서 주목할만 하다.¹¹⁾ 무엇보다도 여성을 독자층으로 하는 고정란이 생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이었다.

또한 김태흡은 구체적인 미래 포교의 대안도 제시하였다. 첫째, 기도와 제사를 위주로 하는 기존의 사원 구조 대신에 민중 중심의 포교에 용이한 구조인 회관식으로 짓자는 것이다. 이는 곧 다수인을 교화하는 민중 감화의 모임 장소로서 교당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문은

9) 김성순, 『『질의록』에 나타난 금명보정의 불교인식과 정토관』, 『보조사상』 제48집, 2017, p.79.

10) 조승미, 「근대 한국불교의 여성수행문화: 부인선우회와 부인선원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3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p.394.

11) 김기중, 2008, p.390.

講話式으로 하며, 반드시 찬불가를 부르고, 우리말로 된 구체적인 성전으로써 설교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당에는 유치원, 간이 서당, 일요 학교, 야학, 유희장 등 부속기관을 두자는 대안도 내놓았다.¹²⁾

이와 더불어 1926년 『불교』 21호(1926.3)에 기고된 <포교에 대한 추의(芻議)>라는 글에서도 포교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기고자는 포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잦은 포교사 교체의 지양, 포교사 회의의 수시 개최, 포교 서적의 다수 간행, 신도의 포교당에 관한 관념을 배양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서는 신도명부를 작성하여 활용할 것, 신도와 포교사 및 신도와 신도 사이에 친목 기관을 만들 것, 2개 이상의 포교당이 있는 곳에는 신도들의 이중 참가, 간섭을 배제할 것, 포교당에서 법사 설교의 효율적인 운영, 회사 복전의 설비 및 소액의 보시제 운용, 포교당의 유지 책임은 신도가 부담하고 그 부족분만 본말사에서 보조할 것 등도 제시하였다.¹³⁾

위의 무명의 기고자나, 김태흡-그의 친일행적과는 별개로-의 아이디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1920년대에 성립된 공주포교당 역시 그 궤적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 포교당은 1922년 5월 초에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포교사 현서봉(玄瑞鳳)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두 차례 법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였다. 같은 해 8월 하순에는 포교당에 충남불교청년회 본부를 포교당에 두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8월 30일에는 불교부흥청년회에 소년부를 설치하여 최초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1월부터 공주불교청년회 주체로 포교당에서 야학을 운영하였다. 또한 1923년 5월 23일(음 4월 8일)에 석가탄신일 법회를 한 후 외부 강사 특강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1929년 12월에는 공주읍내 유력한 상인 30여명이 중심이 된 상번회 창립총회가 공주포교당에서 열리기도 했다.¹⁴⁾ 이는 단

12) 김광식, 2005, p.19.

13) 이 글에서는 당시(1924.12)에 포교당 수가 72개처, 포교자수 72명, 신도수 203,533명으로 전한다. 김광식, 2005, pp.15-16.

순히 지역민들에게 창립회 장소를 빌려준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포교당이 지역사회에 점차 파고드는 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밖에도 신행과는 별도로 공주 지역의 여러 단체들의 모임이 포교당에서 치러졌던 것으로 보아, 지역의 문화센터 내지 회관의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인선회 등이 만들어지고, 민중교화에 유리한 형태의 건물이 포교당으로 세워지던 1910년대 이후의 상황과 김태흡을 비롯한 당시 신진 승려들의 포교 아이디어가 1920년대 공주포교당에서도 상당 부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능인소년회와 아리다라부인회의 활동

본 장에서는 아리다라부인회가 어떠한 조직이고, 어떠한 활동을 실천했는지, 그리고 공주포교당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달강습원을 운영한 능인소년회를 같은 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강습원을 운영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리다라부인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아리다라’라는 부인회의 명칭은 티벳 밀교의 보살인 ‘arya-tara’(阿唎耶多羅)-능엄주 범어역본에서는 아라타라로 읽는다-에서 딴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명칭에서 유추해보면 아리다라부인회는 선회(禪會)보다는 능엄주 독송을 주로 하는 염불회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리다라부인회 주관으로 공주 금강에서 매년 2~3명씩 익사하는 귀혼들을 천도하기 위해 1926년 6월 1일에 능인소년회, 여타 신도들과 더불어 천도재를 열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천도식에서는 미타번(彌陀幡)과 여러 회기(會旗)를 앞세우고, 시내를 일주하면서 회중이 염불을 고창했다는¹⁵⁾ 점에서 일종의

14) 1929년 12월 17일 <동아일보> 『마곡사지』

간소화된 ‘수륙재(水陸齋)’ 형식의 천도의식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들이 앞세웠다고 하는 ‘미타번’이란 서방아미타정토를 주재하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새긴 깃발이며, 천도의식이 행해지는 현장에 아미타불이 임(臨)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따라서 미타번을 앞세우는 의식행렬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를 칭명하는 염불을 했을 것이며,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을 주도하여 거행했다는 사실에서 아리다라회의 신앙적 성격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바로 아리다라회의 주체적인 실행이다. 통상 범패를 하는 어산을 비롯한 전문 작법승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의식에 비추어볼 때, 재가여신도들로 이루어진 아리다라회가 주도하여 이러한 의식을 행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무척 진취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의 불행한 일을 위로하기 위하여 포교당의 신앙결사 차원에서 이러한 큰 행사를 치러냈다는 점도 후세에 재평가 받을만 하다고 하겠다.

아리다라 부인회는 1926년 6월 24일에 창립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기념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어 발표되었다.

- ① 본회원은 불교 선전(宣傳)의 의무를 일차하여 부담함
- ② 본회원은 포교당의 유지 경비를 부담함
- ③ 자선사업의 목적을 실행함
- ④ 포교당 건축 방침의 건¹⁶⁾

①에서 말하는 ‘불교 선전의 의무’는 포교의 의무를 말하며, 구성원이다 함께 포교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이다. ②, ③은 아리다라부인회의 구성원들이 적지 않은 회비와 보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유지급에 해당하는 계층이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④는 공주포교당이

15) 1926년 8월 『불교』 26호(55면, 불교사 간행)

16) 1926년 8월 『불교』 26호(55면, 불교사 간행)

충남지역지역 본말사연합에 소속된 포교당이었기 때문에 아리다라회에서 설립 당시부터 독립된 포교당을 짓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발표규약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리다라회는 수행뿐만 아니라, 포교와 사회봉사까지 함께 지향하는 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교를 강습하지 않고는 불교를 알릴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연령 20세 이상 40세까지의 부인 강습생 30여 명을 모아놓고 주야로 강습했다고 한다. 이들 강습생에 대한 교육은 포교의 목적을 겸하고 있었으며,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는 강습생들이 다시 포교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으리라는 점도 짐작해 볼 수 있다.

1926년에 창립기념식을 하기 이전부터 이들이 포교당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1925년 8월에는 수재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아리다라 부인회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기도 했다.¹⁷⁾ 이러한 행보는 자선사업을 활동 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것과 일치한다.

특이한 것은 아리다라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란분절 의식을 포교당에서 거행하기도 했다는 점이다.¹⁸⁾ 해당 기사를 보면 법사를 초청했다거나, 본사 승려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리다라부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회원들이 만든 자수 수예품을 모아서 판 돈으로 출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회원들의 애경사에 위문금으로 사용하자는데 합의하기도 한다.¹⁹⁾ 이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부조활동까지 겸하는 신앙결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불교부인회원 110여 명, 전교부인(傳敎婦人)이 9명, 전교부인강습생이 40여명’이라는 신문기사의 한 대목인데, 이는 부인회원 중에서 지원한 포교자 그룹이 따로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아리

17) 1925년 8월 4일 <동아일보> 4면

18) 1925년 8월 27일 <동아일보> 4면

19) 1925년 10월 20일 <동아일보> 3면

다라부인회 구성원 중에서 포교전문인력 그룹이 별도로 존재했고, ‘전교부인강습생’이라는 별도의 그룹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양성과정을 거쳐서 포교사로 활동했던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²⁰⁾

한편 1925년 12월 16일에는 공주포교당에서 포교사 현서봉(玄瑞鳳)의 주도로 불교능인소년회를 조직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²¹⁾ 또한 이 능인소년회에서 무료 소년강습소를 열어서 수백 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매주 화·수·금요일마다 강습을 했다.²²⁾ 이들은 주로 무산계층의 남녀학생들에 집중하여 야학 강습소를 열어서 무료로 교육을 했다.²³⁾ 이 무료 강습소를 열기 위해 포교사 현서봉은 소인극을 개최하는 등의 활발한 모금활동을 펼쳤지만, 마곡사 주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체되다가 1926년 11월 20일에 이르러서야 ‘공주불교 능인소년회’ 명의로 강습소 개설이 된 것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강습소는 실달강습원(悉達講習院)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강사들은 모두 무보수로 일했음을 알 수 있다.²⁴⁾

또한 이 실달강습원에서 가르쳤던 과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매주 수요일마다 강습했던 종교 과목을 비롯하여, 조선어, 국어, 산술로 되어있다. ‘조선어’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국어’는 일본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과목은 현서봉 포교사를 포함한 강사 3명, 조선어 과목은 강사 2명, 국어과목은 강사 2명, 산술과목은 강사 6명이 배정되어 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유독 산술과목의 강사 수가 많은 것은 이 실달강습원 과목 중에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당시 생활에서 기초 소양으로서 꼭 필요한 과목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이 실달강습원은 돈이 없어 학교에 갈 수 없었던 빈민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20) 1926년 12월 『불교』 30호 41면, 불교사 간행.

21) 1926년 1월 23일 <시대일보> 3면

22) 1926년 10월 『불교』 28호(36면, 불교사 간행), 불교회보(佛敎彙報)

23) 1926년 11월 21일 <동아일보> 4면

24) 1964년 도선사에서 성철과 청담에 의해 개교되었던 실달학원은 승려 양성소의 역할을 했다.

하는 ‘간이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실달강습원은 마곡사 주지인 유인명(兪寅明)의 독단적 행보로 인해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유인명 주지가 공주포교원의 포교사인 현서봉을 협의도 없이 해임하자, 공주포교당의 아리다라부인회를 비롯한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던 것이다.

결국 1926년 말부터 전임 유인명 주지의 인가가 취소된 이후 7~8개월간 계속 주지가 공석인 채로 분쟁을 계속하자, 충남도에서는 지난 선거 차점자였던 안향덕을 주지로 임명한다. 이후 현서봉은 1927년 7월 7일에 공주의 상반정(常盤町) 지역에 새로 공주포교당을 열고 봉불식을 거행했다.²⁵⁾ 이전에는 충남 본말사연합 포교당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현서봉 개인의 명의로 포교당을 열게 된 것이다. 이는 마곡사 본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포교당을 운영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서봉은 새로운 포교당을 개설한 이후에도 본정 소재 포교당 소속의 능인소년회 고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포교당과 대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7년 이후 현서봉의 상반정 포교당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곡사 측의 강력한 제제가 있었으리라는 점만 추측할 뿐이다.²⁶⁾

한편 새로운 공주포교당에서는 같은 달 18일에 지장회(地藏會)와 여자청년회를 조직하여 다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전개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여자청년회의 강령과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강령(綱領) >

1. 불교의 진리를 강구하여 진선(眞善)한 법역(法域)에 이르게 할 것
2. 청년부녀를 실지실천케 하여 아 민족을 문명의 역(域)으로 선도할 것
3. 부모로 하여금 현증복수(現增福壽)하고 당생정토(當生淨土)케 할 것
4. 선망부모(先亡父母)와 법계함령(法界含靈)을 삼계화택에 영리(永離)하

25) 1927년 11월 6일 <중외일보> 4면, 『마곡사지』 인용.

26) 사문경, 2003, pp.380-381.

고 공정불과(共訂佛果)케 할 것

< 결의(決議) >

1. 청년부녀를 모집할 일
2. 매월 18일 회집하여 청법(聽法)할 일
3. 입회금은 1원으로, 월손금은 10전으로 할 일
4. 입회금은 금융에 저축할 일

인용문의 <강령> 1은 불교신앙결사의 규약에 자주 보이는 내용이며, 2에서는 신앙결사를 넘어서 사회운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은 불교 수행을 통해 세속적인 행복과 사후의 구제를 기원하는 정토신앙이 나타나고 있으며, 4에서는 수행의 공덕을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는 물론 모든 중생에까지 회향하는 대승보살도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결의>에서는 신앙적인 내용보다는 회원 모집과 모임의 규칙을 정하고 있다. 특히 월손금을 적립하는 것은 아리다라부인회의 경우처럼 사회적 봉사나 포교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39년에는 포교사 임명을 둘러싼 마곡사와 공주포교당과의 갈등이 재개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포교사 홍성현(洪性鉉, 60)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본사 마곡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게 되고, 2월 4일에 후임자인 김응만(金應萬)이 사무인계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포교당의 아리다라부인회에서는 새 포교사의 취임에 대해 절대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²⁷⁾ 동일 신문기사 내용에서 아리다라 부인회를 ‘50 이상 67세 된 가정부인들이 모여 불교를 숭배하는 일개 부인양로원이라는 별명까지 듣는 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기사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주포교당에서 아리다라부인회의 위치

27) 1939년 2월 8일 <동아일보> 3면

나 역할이 실제로는 무척 컸으리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아리다라부인회는 구성원들의 성별이나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신행과 봉사, 무료강습소를 포함한 포교당 지원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70개 정도의 말사를 거느렸던 본사에 맞서서 공주 포교당의 포교사를 지킬 정도의 조직이었던 것이다.

IV. 마곡사와 공주포교당의 불편한 공존과 그 배경

전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공주 읍내 본정(本町)에 위치한 공주포교당은 한때 신도가 오백 명에 달했으며, 청년회와 부인회, 소년회까지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본산 마곡사 주지 유인명이 새로 취임한 후 포교당을 폐지하기로 하고 포교사 현서봉을 해임하였으므로 각 회가 해산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⁸⁾ 유인명주지는 현재의 포교당 위치가 시내 중심가라 너무 번화하다는 이유로 법원 인근의 한가한 초가와 바꾼 뒤 잉여금을 사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며, 이에 분개한 신자들이 반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²⁹⁾ 1926년에 유인명이 다시 마곡사 주지로 임명되지만 인가신청 과정에서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분규가 발생하게 된다. 1926년 12월 선거 직후 충남 60여개소 말사 주지 외 백여 명의 승려들이 당국에 인가를 취소하도록 결의하고 공주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³⁰⁾

이후에 유인명 반대파들은 다시 공주포교당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사태로까지 확대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³¹⁾ 결국 현서봉이 대리 주지로 취임한 이후 사찰 사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연말상

28) 1925년 7월 17일 <동아일보> 3면

29) 1923년 8월 14일 <동아일보> 4면

30) 1926년 12월 19일 <동아일보> 『마곡사지』 인용.

31) 1926년 12월 21일 <동아일보> 『마곡사지』 인용.

여금 문제로 전 직원을 면직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마곡사를 끌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³²⁾

하지만 유인명 주지 시절부터 함께 해 온 현서봉 역시 대리 주지가 된 이후에는 공주 포교당의 아리다라부인회원과 소년회원 등에 의해 배척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임 포교사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다른 포교사를 보내달라고 진정했다가 현서봉 주지가 공주포교당에 온 것을 기회로 양측의 갈등이 폭력사태로까지 발전했던 사태를 통해 드러난다.³³⁾ 이 사건은 결국 면상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현서봉 대리 주지가 유인명 주지파인 신임 포교사 모씨를 구타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또한 신임 포교사 이관허가 공부하러 온 남녀학생들을 포교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우중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³⁴⁾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공주포교당의 무료강습원은 곧바로 침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³⁵⁾

1928년 10월에는 총독부 학무국장이 충남도지와 함께 마곡사를 순찰하고 승려들에 대한 입장 훈화가 있었으며, 바로 그 다음 해에 마곡사 제4회 정기총회에서 능인소년회의 임원 항목을 축소하게 된다. 이는 공주포교당의 임원활동을 제약하고 마곡사에서 포교당의 조직들을 직접 통제하려 했던 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³⁶⁾ 결국 1929년 이후 공주포교당의 능인소년회의 활동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1931년에는 공주포교당의 능인야학원을 돕기 위해 서산군에 사는 윤해

32) 1927년 1월 14일 <동아일보> 『마곡사지』 인용.

33) 1927년 3월 4일 <동아일보> 5면 『마곡사지』 인용.

34) 1927년 5월 6일 <동아일보> 4면 『마곡사지』 인용.

35) 현서봉 대리주지는 이후 충남도의 주재로 차점자인 안향덕이 마곡사 주지로 임명되자 1927년 7월경에 단독으로 상반정에 공주포교당을 열게 된다. 1928년에는 인천부 화평리 194번지에 독존포교당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군산 법흥사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36) 사문경, 2003, pp.381-382.

주(尹海舟, 74)노인이 기부한 500원을 마곡사 승려 한보순이 다른 곳에 전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야학원 측에서 기부금을 돌려줄 것을 재촉하자 마곡사 소유인 공주포교원 건물 자체를 시내에서 5리나 떨어져 있는 영은사(靈隱寺)로 이전하라고 하여 갈등이 지속되었다.³⁷⁾ 결국 1932년 2월에는 야학을 자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1933년에는 공주 기우단(記友團) 30여 명이 모여 신년 간친회를 여는 자리에서 마곡사 측이 500원의 현금을 출연할 터이니 능인학원을 공주 유지들이 알아서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포교상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공주경찰에서는 불순한 단체에 학원을 인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입회 경관에 의해 토의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마곡사 측과 공주포교당과의 분쟁 현상의 이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포교당 강습원의 과목 중에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던 점이나, 빈민층의 자녀들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뭔가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 포착되는 ‘불순함’이 있었으리라는 점이다.³⁸⁾ 실제로 이 시기 공주지역에서 ‘청년혁신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들 상당수가 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32년 2월 23일에 있었던 공주청년회 간부들이 마곡사 승려를 폭행했던 사건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³⁹⁾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제 경찰이

37) 1931년 8월 21일 <동아일보> 3면

38) 1930년대 전반기는 각지에 비밀결사가 생겨났던 시대였다. 공주에서도 1930년대 초반 두 건의 비밀결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심인물은 대부분 공주고보를 중도 퇴학한 ‘혁신청년’들이었다. 가령 1931년 10월경부터 1932년 2월경까지 우성면 방흥리 조각인과 읍내 점원들을 선동하여 적색결사를 조직하고자 한 혐의로 1932년 12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명렬(朴明烈)은 공주고보 중도퇴학생이었다. 박명렬은 징역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비밀결사활동을 계속하다가 1935년 7월 모종의 사건으로 체포되었으니 이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예심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박명렬은 1993년 ‘독립운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건국포장을 받았다. 지수걸, 『공주의 근대와 공주 사람들: 한말·일제시기 공주의 근대도시 발달사』 공주문화원, 1999, pp.286-287.

39) 1932년 2월 23일, 일본 경찰은 돌연 공주청년회 간부인 하창순, 김정태, 박명렬

지속적으로 본사인 마곡사 측을 통해 포교당에 압력을 행사하여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곡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공주포교당을 시내 중심에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말사나 변두리로 옮기려고 시도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 마곡사 측은 포교당과의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출연금을 내가면서 운영의 책임을 민간으로 넘기려 했지만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주지 임면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더 통제하기 쉬운 마곡사에게 포교당의 운영을 계속 맡기려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것이 위의 기우단 간친회 사건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저간의 배경이다.

또한 본사인 마곡사에서 임명하여 보낸 포교사를 말사인 포교당에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당시의 불교계 분위기로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당시 일제가 한국불교에 이식했던 교구 본산제와 사찰령에 대한 불만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불교 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이 날로 고조되면서 이를 표면적인 시위로 드러내는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친일파 승려로 비판받던 이회광이 교장으로 있었던 불교사범학교의 활동과 취지가 부진하게 되자, 1914년 30본산 주지회의소 총회에서 박한영을 내세워 고등불교강습을 설립하게 된다. 하지만 이 학교의 학생들이 본산주지들의 친일적 태도 및 무능한 교육시책에 반발하여 조선불교회를 조직하게 되면서 폐기되었던 일도 하나의 사례이다.⁴⁰⁾

등을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이들이 마곡사 승려(포교당내 능인야학 이사)를 폭행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마곡사 승려가 '상춘관'이라는 기생집을 자주 출입하자 몇몇 청년들이 시비 끝에 폭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 공주고보와 영명(여)학교 구내에 3.1절 12주년을 기념하는 반제격문 수십 매가 뿌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물론 이 두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지만 공주경찰은 이 두 사건을 운동권 청년들의 불온한 행동으로 간주하면 동일 사건으로 엮어매기 시작했다. 지수걸, 앞의 책, p.310.

이러한 당시의 전반적인 불교계 내외의 분위기가 교구 본사에 과도한 힘을 실어준 본말사제도에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공주 포교당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말사의 신도 조직들이 나서서 마곡사와 침례하게 대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근대불교의 시야를 통해 공주포교당의 신앙결사조직인 능인소년회와 아리다라부인회를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1910년대 이후 근대적 포교이념과 함께 각 교구 본사들을 중심으로 포교당 설립이 진행되면서 공주 읍내에도 포교당이 등장하게 된다. 충남지역 본말사연합 포교당이었던 공주포교당은 교구 본사인 마곡사와 포교사 임명 문제로 인해 몇 차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 유지 계층에 속하는 부인들로 구성된 아리다라부인회는 신행과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특히 포교사 임명의 문제에 대해 강한 행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식민지 시기 일본 총독부의 불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 당시 한국 불교계의 전반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포교사 임명 문제를 둘러싼 아리다라회의 강한 반응은 사찰령과 31본산제로 인해 교구 본사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전통적인 사원의 협의체제가 붕괴된 것에 대한 한국불교 전체의 반발을 투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주포교당 내의 또 다른 결사조직인 능인소년회에서 운영한 무료강습소인 실달강습원의 경우에는 무산계층을 위한 사회적 활동과 겹치게 되면서 총독부의 주시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또 다시 협의

40) 김귀성, 「한국 근대불교의 개혁론과 교육개혁」, 『원불교학』 제9집, 한국원불교학회, 2003, p.323.

없이 포교사를 바꾸는 방식으로 마곡사 측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포교당 측의 주요 세력인 아리다라부인회와 대립하게 된다. 이 능인소년회의 경우에는 결국 자체적으로 강습소를 폐지하게 되기에 이르는데, 이는 본사의 독단 이면에 일제의 감시 및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까지 맞물려 갈등의 배경으로 작동하게 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결사 모두 지역의 포교당에서 신행과 포교, 사회적 봉사까지 지향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결국 시대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아리다라부인회 같은 경우, 여성재가자들로 이루어진 신행결사로서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신행과 사회적 활동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재평가할만한 요소가 많아 보인다. 오늘날의 한국불교의 자원들이 일제의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의 압박을 견뎌냈던 근대불교의 산통으로 축적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의 포교당에서 보여준 두 결사조직의 신행과 열정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지수걸, 『공주의 근대와 공주 사람들: 한말·일제시기 공주의 근대도시 발달사』 공주문화원, 1999.
- 사문경, 「1920年代 公州布教堂의 運營과 活動」, 『한국불교학』 34집, 한국불교학회, 2003.
- 김광식,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근대불교 최초의 포교당 연구」, 『대각사상』 제6집, 대각사상연구원, 2003.
- _____, 「근대불교의 청소년 포교와 조선불교소년회」, 『대각사상』 제8집, 대각사상연구원, 2005.
- _____,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일본불교사연구』 제9호, 일본불교사연구소, 2013.
- 김기중, 「근대 불교잡지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민족문화연구』 제2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387.
- 김귀성, 「한국 근대불교의 개혁론과 교육개혁」, 『원불교학』 제9집, 한국원불교학회, 2003.
- 김성순, 「『질의록』에 나타난 금명보정의 불교인식과 정토관」, 『보조사상』 제48집, 2017.
- 이병욱, 「한국 근대불교사상의 세 가지 유형: 근대적 종교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종교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신종교연구』 제20집, 한국신종교학회, 2009.
- 조승미, 「근대 한국불교의 여성수행문화: 부인선우회와 부인선원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3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정영식, 「한일 근대불교 사원조직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27호, 불교학연구회, 2011.
- 『불교』, 불교사, 1926.
-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앙일보>, <중외일보>, <경향신문>

Abstract

Gongju Dongbul Temple and Korean Buddhist Associations of the Modern Era: A Study of the Neungin Boys' Association and Aridara Women's Association

Kim, Sung-soon
(Researcher, Institute of Religious Studies, SNU.)

This paper recounts the approximately 13-year history of the Aridara Women's Association and Neungin Girls' Association—two modern Buddhist associations active at the Gongju Temple for Dharma Propag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Korea—and consider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ir efforts to spread Buddha-Dharma teachings and contribute to social betterment.

Beginning with the advent of the concept of *pogyo* (spreading the Buddha-Dharma) in the 1910s, temples for teaching the Buddha-Dharma, known as *pogyodang*, were established as satellite temples attached to main temples in each district. The Temple for Dharma Propagation in Gongju (*Gongju pogyodang*) was also established in this context.

Members of the Aridara Women's Association came from affluent and influential families of the Gongju area and partook not just in religious activities and volunteer work, but were also extremely active in influencing the appointments of *pogyosa*, monks who spreads the Buddha's teachings. Their activities should be viewed in the larger overall context of a growing and widespread unease within Buddhist circles over the Buddhist policies of the Governor-General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other organization within the Gongju Temple for Dharma Propagation

was the Siddhartha Training School (*Sildalgangseubwon*), a free school run by the Neungin Girls' Association which provided teaching and services to the lower classes. This school appeared to be closely watched by the Governor-General because of its social outreach activities. Eventually, the Neungin Girls' Association closed this training school, which was likely a result of both the independent judgement of the main temple and factors related to surveillance conduct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and conflict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forces.

Additionally, the Aridara Women's Association, which held considerable power within the Temple for Dharma Propagation, came into conflict with influential monks at Magok Temple over the question of appointing *pogyosa*. It appears that the Aridara Women's Association won this dispute.

Both of these associations are notable for the meaningful contributions they made to spreading the teachings of the Buddha and engaging in voluntary social service work.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y were unable to overcome the hardships and limitations of the times they lived through. Regardless, the accomplishments of these two associations are notable for demonstrating the birth pains endured by modern Buddhist organizations resulting from the pressure placed on them by the irrational Buddhist system under Japanese occupation.

Key words

Gongju Temple for Dharma Propagation, pogyodang, Aridara Women's Association, Neungin Boys' Association, colonial Korea, modern Buddhist associations